

지혜 깊어지는 건강 > 건강 찾아 떠나는 캠핑
글·사진 김산환 여행작가, 꿈의지도 대표



제주에서 겨울 캠핑

뚜벅뚜벅 올레를 걸으며 몸으로 제주를 느끼다

어둠이 오면 텐트마다 랜턴 불빛이 피어난다. 추운 날씨지만 랜턴 불빛은 은은하며 따뜻하다. 창백한 가로등 불빛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정감이 있다. 텐트마다 피어난 랜턴의 불빛은 캠핑장을 환하게 비춘다. 캠퍼들은 모닥불 앞에 앉아 조용 조용 이야기를 나누며 제주의 밤이 깊어가는 것을 지켜본다. 한라산과 오름, 올레와 겨울 바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제주에서 캠핑은 캠퍼들이 꿈꾸는 로망이다.



캠퍼들은 해안을 따라 걷는다. 한라산과 오름, 올레와 겨울 바다가 만난 제주에서 캠핑은 캠퍼들이 꿈꾸는 로망이다.

길을 넘어 너와 나 소통의 땅으로

제주는 그동안 물사람들에게 세 번 길을 내줬다. 처음은 한라산이다. 철쭉꽃 피는 봄이나 소나기 내린 후 구름바다가 펼쳐진 여름날의 백록담, 오백나한을 곱게 물들이는 영실의 단풍, 나뭇가지마다 눈꽃 만발한 탐라계곡의 겨울, 한라산은 계절마다 모습을 달리하며 이남 최고봉의 아름다운 자태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오름이 두 번째다. 제주에는 한라산 말고 오름이라 불리는 아주 정겨운 봉우리가 368개 있다. 이 봉우리가 오름이

라 불리는 기생화산이다. 오름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오름을 찾아 목동처럼 제주의 중산간을 누볐다.

세 번째가 올레다. 올레는 집과 마을을 이어주는 길을 뜻하는 제주의 사투리다. 그러나 단순히 집과 마을을 잇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길의 의미를 넘어선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올레는 사람 사이의 소통을 의미한다. 시대와 시대의 연결을 의미한다. 올레는 가장 제주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걷는 것을 통해 자연과 일치감을 느끼려는 이들에게는 문화적 소통의 의미로 다가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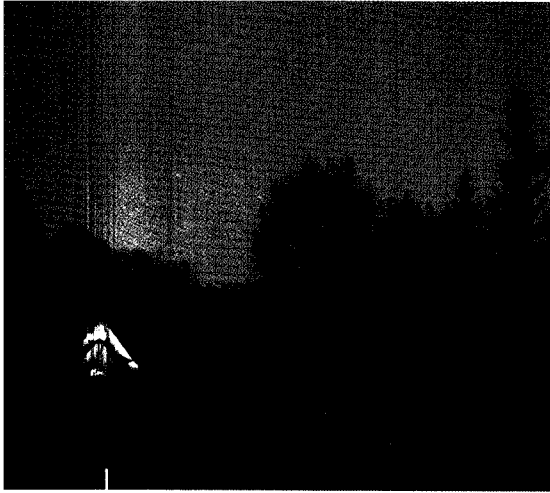


제주 캠핑장에서는 따로 풍광이 좋은 곳을 찾을 필요도 없다. 제주에서 캠핑하는 것은 캠퍼의 꿈이다.

올레를 걷는다는 것, 제주를 알아가는 것
 올레가 알려지면서 제주에는 계절 불문하고 걷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여행자들은 해안을 따라 걷기도 하고, 돌담을
 따라 중산간의 들녘을 거닐기도 한다. 마을에서도 불쑥불쑥
 나타나고, 오름 위에도 처연하게 올라 있다. 제주 사람들은
 그들의 등장에 의아해했다. 한라산도, 이름난 오름도 아닌데,
 무슨 순례를 떠나 성자들처럼 말없이 거니는 사람들의 정체를
 몰라 수군거렸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에
 목말라 하고, 가장 제주다운 풍경과 순박한 섬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걸으면서 제주를 몸으로
 느끼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올레를 걷는 사람들, 그들은 어딘가 모르게 서툰다. 갑자기
 트레킹을 나선 이들처럼 급조된 느낌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에는 진지함이 넘친다. 이전 같으면 차를 타고 훌쩍
 지나갔을 이름 없는 마을과 해변,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풀까
 지 눈길을 주며 제주를 걷는다. 올레 마니아가 아니라면 한
 번에 올레를 모두 걸을 수는 없다. 그런 여행자들은 올레가



제주의 깊고 푸른 밤을 만날 수 있는 캠핑장이 제주에는 여럿 있다.



작은 풀까지 눈길을 주며 제주를 걷는다.

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길을 걸어보고 싶어 한다. '아름다운 길'에 대한 기준은 여행자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몇 구간은 누구나 인정할 만큼 아름다운 곳이 있다. 성산포를 감상하며 도는 1코스(시흥~말미오름~성산갑문~광치기해변), 서귀포 해안비경을 품는 7코스(외돌개~법환포구~월평마을), 남국의 정취가 물씬한 10코스(화순해수욕장~송악산~모슬포항) 등은 올레에서도 최고로 꼽을만 하다. 또 '섬 속의 섬' 우도를 한 바퀴 도는 올레도 낭만적이다.

동백꽃과 한라봉이 반갑게 객을 맞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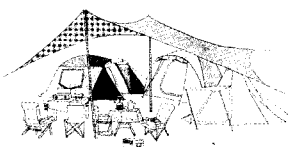
올레를 겨울에 찾는다면 동백꽃도 마음껏 구경할 수 있다. 동백꽃을 구경하기에는 동백나무 군락지를 지나는 5코스가 가장 좋다. 수십 년 전 한 할머니가 황무지의 모진 바람을 막으려고 심은 동백나무 한 그루가 이제는 동백나무 군락지를 이루었다. 추운 날씨에 오롯이 꽃잎을 틔운 동백꽃은 올레길에서 만난 반가운 손님이다. 눈이라도 오는 날 올레길을 걷는다면 하얀 눈을 덮고 붉은빛을 잃지 않은 동백꽃을 만날 수 있다.

올레에서는 겨울철 과일인 귤이나 한라봉을 주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더욱 좋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인지 올레를 걷는 사람들은 서로 오가며 귤을 하나씩 나눠 먹기도 한다. '반갑수다예', '고맙수다예' 제주 방언을 건넨다면 좋은 추억이 될 듯하다.

겨울철이니만큼 주의해야 할 사항도 따른다. 해가 빨리 지므로 무리한 코스 계획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루에 한 코스 이상 가겠다는 욕심은 잠시 접어 두자. 걸을 때는 체온 변화가 심하므로 옷은 여러 겹 껴입는 것이 유용하다.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바람막이를 챙기는 것도 필수다.

올레길을 걸어 도착한 캠핑장에서는 제주의 깊고 푸른 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제주 캠핑장에서는 따로 풍광이 좋은 곳을 찾을 필요도 없다. 어떤 곳에 자리를 잡든 자연과 오붓한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다. 바다와 산, 올레와 사람. 부족한 것 없는 제주에서 캠핑이 아름다운 이유다. MEDYCHECK

겨울 제주 캠핑 바람만 조심하자



제주에도 캠핑장이 여럿 있다. 제주에서 캠핑하는 것은 캠퍼의 꿈이다. 제주도에서 캠핑은 물과는 분명히 다른 재미가 있다. 제주의 캠핑장은 모구리아영장, 돈내코야영장, 서귀포자연휴양림, 한라산 관음사야영장 등이 있다.

그러나 바람 많은 섬 제주도인 만큼 바람을 주의해야 한다. 항상 바람막이가 될 수 있는 곳을 고려해서 사이트를 잡아야 한다. 특히, 낮과 밤은 분명히 다르다. 낮에 평온하다가 밤만 되면 바람이 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